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Q-방법론적 접근

최미경¹ · 서지민²

¹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²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Suicide: Q-Methodological Approach

Choi, Mi-Kyung¹ · Seo, Ji-Min²

¹N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²Associated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suicide. **Methods:**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irt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ed 37 selected 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nl PC Program. **Results:** Three types of attitudes toward suicide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opposing suicide-moral minded) showed an attitude of opposing suicide and thinking that suicide is a sin. The second type (understanding-empathizing suicidal person) showed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adolescents who has suicidal ideation and empathizing with them. The third type (ambivalent attitude) showed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the suicidal person but, at the same time, opposing suicide.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suicide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three types of suicide attitudes among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itud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십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2위이며, 이 중 여학생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Statistics Korea, 2008). 가족이 수치심과 불명예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이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교육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인권본부 등을 통해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 번의 자살시도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자살시도 이전 단계에서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살 위험요인 또는 예측요인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Yoo, Son, & Nam, 2008), 청소년 자살 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Park, 2008),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된 모형구축(Shon,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Kim & Lee, 200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우울, 스트레스, 절망감, 충동성, 분노표현양식, 학대경험, 약물 및 인터넷 중독, 가족관계, 친구 및 교사 관계, 사회적

주요어: 청소년, 자살 사고, 자살, 태도

*이 논문은 제1저자 최미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eo, Ji-Mi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51 Fax: +82-51-510-8308 E-mail: seojimin@pusan.ac.kr

투고일: 2010년 11월 5일 심사외뢰일: 2010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4일

지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 외에 세계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온 자살 위험요인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가 있다(Kodaka, Poštuvan, Inagaki, & Yamada, 2010). 태도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일관된 인지, 정서, 활동 성향을 말한다(Myers, 2009). 즉, 자살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자살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Ban, Park, & Suk, 1989). 다수의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태도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가 관련성이 있으며,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음을 보고하여(Arnautovska & Grad, 2010; Kim et al., 2008; Stein, Witztum, Brom, Denour, & Elizur, 1992) 자살에 대한 태도가 자살 위험요인임을 입증하였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Kim, Kim과 Jang (1999)과 Oh (2006)의 연구가 있다. Kim, Kim과 Jang의 연구는 Domino, Moore, Westlake와 Gibson (1982)이 개발한 Suicide Opinion Questionnaire (SOQ)를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Oh (2006)의 연구 또한 이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살에 대한 태도보다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으며 정서, 인지, 편견, 동기, 충동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제한점이 있을 뿐 아니라(Anderson, Lester, & Rogers, 2008)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 사회,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살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인식이나 느낌, 태도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나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태도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표집 방법

1) Q모집단의 구성

심층면담을 통해서 대부분의 진술문을 구성하였고 심층면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자살태도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B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2명(여학생 1명, 남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여학생 1명, 남학생 2명)과 청소년 상담 경험이 많은 심리상담전문가 3명(여자 2명, 남자 1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1월 16일에서 2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서 면담을 시행하였고, 주로 상담실 또는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었으며 평균 2-3회 면담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평소에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자살을 생각해봤습니까?” 등의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심리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은 “평소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할까요?” 등의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기록하였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기타 서적을 이용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210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2) Q표본의 선정

210개의 Q모집단을 반복하여 읽고 공통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끼리 합치는 범주화를 통하여 총 37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결정된 범주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거나 변별성이 높은 상이한 의미를 나타낸 진술문을 연구자가 선택한 후 Q-방법론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성인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의견을 교환하여 37개의 Q진술문을 선정하였다.

3) P표본의 표집 방법

P표본은 B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30명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자살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Oh (2006)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중학교와 고등학생을 고루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 수집이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진급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초등학생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로 인해 자료 수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각각 2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자살에 대한 태도가 성별과 학업성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P표본을 구성하였다.

4) Q표본의 분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3월 11일에서 31일까지였다. 대상자가 Q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Q표본의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Q분류과정은 Q진술문을 읽은 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반대(-)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 다음 동의(반대)한 진술문 중에서 가장 동의(반대)하는 것부터 골라 바깥에서부터(+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해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Q표본의 분류가 끝난 후 대상자에게 강하게 동의하는(+4) 문항과 강하게 반대하는(-4) 문항으로 분류한 진술문에 대해 선택이유를 질문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과 해석 시에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Q분류과정은 보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1인당 45분-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Q요인 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며 이상적인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유형의 수를 3-5개로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를 검토한 뒤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3개의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연구 진행 전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모집과

정에서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학부모는 전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면담의 진행과정, 면담내용과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녹음된 테이프와 기록은 연구 종료 후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면담 중간에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진행과정, 면담내용, 연구참여 철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4.8%를 설명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1유형이 38.6%, 제2유형이 9.1%, 제3유형이 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1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Table 1).

3개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이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유형의 상관관계가 중간 정도($r = .25-.51$)로 나타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제1유형이 18명, 제2유형이 7명, 제3유형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N=30)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	11.5876	2.7297	2.1241
Variance (%)	0.3863	0.0910	0.0708
Cumulative variance	0.3863	0.4772	0.5480

Table 2. Correlation among Types (N=30)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Type 2	0.360	1.000	
Type 3	0.514	0.245	1.0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sample (N=30)

Type	Id	Factor weight	Gender	School	Religion	Academic achievement	Suicidal impulsion
1	10	2.4767	F	MS	None	Middle	No
	29	2.3154	M	HS	None	Low	No
	23	2.0328	M	MS	Buddhist	Middle	No
	11	1.9054	F	HS	None	Middle	Yes
	28	1.6561	M	HS	None	High	No
	27	1.5292	M	HS	Buddhist	High	No
	7	1.5201	F	MS	Buddhist	Middle	No
	1	1.4627	M	MS	Protestant	Middle	No
	19	1.4479	F	HS	Protestant	Low	Yes
	25	1.3163	M	HS	Buddhist	Middle	Yes
	22	1.2675	M	HS	None	Middle	No
	6	1.2092	F	MS	Buddhist	Middle	Yes
	24	1.1894	M	HS	None	High	No
	16	1.0325	F	HS	Protestant	Low	Yes
	2	0.9937	M	MS	None	High	No
2	30	0.6839	M	HS	Buddhist	Low	Yes
	9	0.6473	F	MS	Buddhist	Middle	Yes
	13	0.4817	F	HS	None	Middle	Yes
	12	1.4386	F	HS	None	Middle	Yes
	15	0.9258	F	HS	Catholic	Middle	No
	14	0.8878	F	HS	None	Middle	No
3	18	0.6796	F	HS	None	Middle	Yes
	17	0.6184	F	HS	Protestant	Middle	Yes
	21	0.5827	M	HS	None	Middle	Yes
	5	1.4879	M	MS	Protestant	Middle	No
	26	1.3463	M	HS	Buddhist	Middle	Yes
	4	1.1070	M	MS	Protestant	Low	No
	3	0.9103	M	MS	Protestant	Middle	No
8	0.7771	M	MS	Buddhist	High	No	

F = female; M = male; MS = middle school; HS = high school.

2. 유형별 특성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

제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남자가 10명(55.6%), 여자가 8명(44.4%)이었으며, 고등학생이 12명(66.7%)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0명(55.6%)이었으며 학교성적은 상위권이 4명(22.2%), 중위권이 10명(55.6%)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 경험은 8명(4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명(5.6%)으로 매우 적었고, 상담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없었다(Table 3).

이 유형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 ‘자살은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 준다면 자살생각을 막을 수 있다’, ‘친구관계가 좋다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순이었다.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 ‘힘겹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이성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 순이었다(Table 4).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Z값 차이=1.42)’, ‘자살은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이다(Z값 차이=1.36)’,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Z값 차이=1.33)’, ‘친구관계가 좋다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Z값 차이=1.2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Z값 차이=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외롭고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자살생각을 한다(Z값 차이= -2.04)’,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 -1.71)’,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 -1.47)’, ‘가정불화가 심할 때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 -1.04)’ 순이었다(Table 5).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10번 대상자의 면담내용을 보면, ‘힘겹게 살더라도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살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보다 죽는 용기가 더 크므로 그 용기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꿈이 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가장 큰 불효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29번 대상자의 면담 내용을 보면,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선의의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복수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복수할 것이다’,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다면 서로 도와주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만들어준 것은 부모님이 다. 자기 자신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효이다’ 등

Table 4. Q-Statement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N=30)

Q-statement	Z-score		
	Type1	Type2	Type3
1 When people think of suicide they have in mind shirking from difficult things.	-0.79	-1.15	0.85
2 Most suicidal ideation impulsiveness is because of transient mood or feeling.	0.02	-0.17	-0.23
3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feel lonely and/or depressed.	-0.38	2.11	1.21
4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want to be noticed by other people.	-1.94	-2.40	-1.12
5 Rebellious mind leads to suicidal ideation.	-1.06	-1.63	-0.97
6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family trouble is intense.	-0.24	1.31	0.28
7 Suicide can be prevented if parents look after their children with care and love.	1.66	1.47	0.12
8 People do not commit suicide if they have someone with whom to open their mind and talk with when in difficulties.	1.70	0.57	0.85
9 Suicide is a sin not to be condoned.	1.03	-0.72	-0.06
10 Suicidal ideation can be overcome with religion.	0.09	-0.98	1.26
11 Suicide is an extreme act with no clear philosophy of life.	0.75	-0.12	-0.03
12 Frequent suicide news in broadcasting stir up suicidal ideation.	-0.59	-0.75	0.59
13 People attempt suicide when they feel hopelessness about life.	-0.05	0.89	0.82
14 Examination system fo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stirs up suicide ideation.	0.28	0.82	-0.51
15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break up with their lover.	-1.12	-1.83	-1.61
16 Suicide is an extreme act of impiety to one's parents.	1.72	0.49	0.23
17 People who attempt suicide have a selfish attitude, thinking of only oneself.	0.52	0.21	0.12
18 Competitive environment of our society stirs up suicidal ideation.	0.07	0.83	0.61
19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ir behavior is excessively restricted.	-0.78	-0.83	-0.47
20 Suicide causes family and/or friends pain.	1.42	0.67	1.33
21 Violence or physical punishments stir up suicidal ideation.	0.15	0.43	1.37
22 Everyone has suicidal ideation, and it is a normal thing.	-0.13	1.29	-0.87
23 Students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cannot adapt to school life.	-0.29	0.04	-0.33
24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want to have revenge on one who molested them.	-1.63	0.33	-0.17
25 There is no reason for suicide when one has financial leeway.	0.05	1.68	-1.80
26 Students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ve a ba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0.87	-1.68	-0.38
27 People do not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ve close friendship.	1.44	0.51	-0.12
28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feel remorse or a guilty conscience after wrongdoing.	-0.26	0.55	0.12
29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are scolded for the result of an examination.	-0.26	-0.26	0.26
30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ir pride is hurt or they have a sense of inferiority.	-0.56	0.45	1.36
31 Suicide is an insane, crazy act.	0.50	-1.20	1.16
32 There may be painful situations where the only reasonable resolution is suicide.	-1.72	-0.28	-2.19
33 It's better to end one's own life than to live with difficulties.	-1.14	1.33	-1.55
34 I understand enough when someone who commits suicide.	-0.61	-0.47	-1.98
35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are mistreated, compared with others, or treated with discrimination.	-0.06	0.63	-0.16
36 If one has courage to commit suicide, it is better to live with the courage.	2.17	-0.14	1.80
37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adolescent suicide.	0.93	-0.16	0.21

이 포함되었다.

그 외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에 '우리가 힘들어 자살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어서 늘 울음 속에서 살 것이다. 그것이 불효가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자신만 고통에서 벗어나면 끝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나 친구도 생각해야 한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면 살고 싶어질 것이다', '부모가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외롭거나 슬프지 않고 마음이 따뜻할 것이다', '복수하고 싶다면 끝까지 살아서 그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좋다', '목숨의 중요함을 모르는 인간은 한심한 인간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형으로 자살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이며 죄악으로 여기는 도덕적 태도를 나타냈다.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는 부모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의 지지를 자살 예방의 최선책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도덕적으로 자살을 반대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좋은 친구관계가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는 태도를

Table 5. Items of Each Type Which are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Others

(N=30)

Type	Item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Type 1	9	Suicide is a sin not to be condoned.	1.03	-0.39	1.42
	16	Suicide is an extreme act of impiety to one's parents.	1.72	0.36	1.36
	36	If one has courage to commit suicide, it is better to live with the courage.	2.17	0.83	1.33
	27	People do not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ve close friendship.	1.44	0.20	1.24
	25	There is no reason for suicide when one has financial leeway.	0.05	-0.98	1.03
	6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family trouble is intense.	-2.24	1.31	-1.04
	30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ir pride is hurt or they have a sense of inferiority.	-0.56	0.45	-1.47
	24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want to have revenge on one who molested them.	-1.63	0.33	-1.71
	3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feel lonely and/or depressed.	-0.38	2.11	-2.04
Type 2	33	It's better to end one's own life than to live with difficulties.	1.33	-1.35	2.68
	22	Everyone has suicidal ideation, and it is a normal thing.	1.29	-0.50	1.79
	3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feel lonely and/or depressed.	2.11	0.42	1.69
	32	There may be painful situations where the only reasonable resolution is suicide.	-0.28	-1.96	1.67
	6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family trouble is intense.	1.31	0.02	1.29
	24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want to have revenge on one who molested them.	0.33	-0.90	1.24
	1	When people think of suicide they have in mind shirking from difficult things.	-1.15	0.03	-1.18
	9	Suicide is a sin not to be condoned.	-0.73	0.48	-1.21
	10	Suicidal ideation can be overcome with religion.	-0.98	0.67	-1.65
	31	Suicide is an insane, crazy act.	-1.20	0.83	-2.03
Type 3	36	If one has courage to commit suicide, it is better to live with the courage.	-0.14	1.99	-2.12
	1	When people think of suicide they have in mind shirking from difficult things.	-1.15	-0.97	1.83
	10	Suicidal ideation can be overcome with religion.	-0.98	-0.45	1.71
	31	Suicide is an insane, crazy act.	-1.20	-0.35	1.50
	30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ir pride is hurt or they have a sense of inferiority.	0.45	-0.05	1.42
	12	Frequent suicide news in broadcasting stir up suicidal ideation.	-0.75	-0.67	1.26
	21	Violence or physical punishments stir up suicidal ideation.	0.43	0.29	1.08
	4	People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want to be noticed by other people.	-2.40	-2.17	1.05
	27	People do not have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ve close friendship.	0.51	0.96	-1.10
	32	There may be painful situations where the only reasonable resolution is suicide.	-0.28	-1.00	-1.19
	34	I understand enough someone who commits suicide.	-0.47	-0.54	-1.44
	7	Suicide can be prevented if parents look after their children with care and love.	1.47	1.56	-1.44
	22	Everyone has suicidal ideation, and it is a normal thing.	1.29	0.58	-1.45
	33	It's better to end one's own life than to live with difficulties.	1.33	0.10	-1.65
	25	There is no reason for suicide when one has financial leeway.	-1.19	-0.06	-1.74

보여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자살이해-공감형

제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7명으로 모두 고등학생이었으며, 여자가 6명(85.7%), 남자가 1명(14.3%)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3명(42.9%)이었고, 학교성적은 상위권이 없었고 중위권이 6명(85.7%)이었다. 자살충동은 5명(71.4%)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명(42.9%), 상담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1명(14.3%)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유형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외롭고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자살생각을 한다', '부모가 자식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면 자살생각을 막을 수 있다', '힘겹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가정불화가 심할 때 자살을 생각한다', '누구나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순이었다.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 '이성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쁠 때 자살을 생각한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 '자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생각한다' 순이었다(Table 4).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힘겹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Z값 차이=2.68)', '누구나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Z값 차이=1.79)', '외롭고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자살생각을 한다(Z값 차이=1.69)',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Z값

차이=1.67), '가정불화가 심할 때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29),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24) 순이었다.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Z값 차이=-2.12), '자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다(Z값 차이=-2.03),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Z값 차이=-1.65),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죄악이다(Z값 차이=-1.21),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18) 순이었다(Table 5).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20번 대상자의 면담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상관 없다', '자살은 미친 짓이 아니라 제정신이다. 자기 인생인데 상관할 필요가 없다', '외롭고 우울하니까 한번쯤은 자살생각이 든다', '차별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청소년이란 어리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린다. 그러기에 대우를 해준다면 그들은 변할 것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2번 대상자의 면담내용에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인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며 불쌍하고 안됐다', '물론 자살은 그릇된 행동이지만 너무 힘이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은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적으로 해 보았다', '나를 길러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께는 불효다', '누구나 자살을 생각한다. 삶의 고통을 느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은 당연하다', '무교라서 종교로 자살을 극복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생명을 끊으므로 죄악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살하는 것은 안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나 또한 일시적인 감정이 크다', '가정불화가 생기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진다. 그런 게 너무 힘들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보면 무섭고, 수능이니 뭐니 하면 골치 아프고 생각하기 싫고 피하고 싶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살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유형은 정말 고통스럽거나 우울하고 외로울 때 자살생각이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긍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자살이해-공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양가감정형

제3유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모두 5명으로 남자가 4명(80%), 중

학생이 4명(80%)이었고,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자살충동은 1명(20%)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상담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없었다(Table 3).

이 유형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 '구타나 체벌이 자살을 부추긴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한다',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 '외롭고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자살을 생각한다', '자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 '이성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 '힘겹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 순이었다(Table 4).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83),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Z값 차이=1.71), '자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다(Z값 차이=1.50),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42), '방송에서 자살사건을 자주 보도하는 것이 자살을 부추킨다(Z값 차이=1.26), '구타나 체벌이 자살을 부추킨다(Z값 차이=1.08),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Z값 차이=1.05) 순으로 나타났다.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Z값 차이=-1.74), '힘겹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Z값 차이=-1.65), '누구나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Z값 차이=-1.45), '부모가 자식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면 자살생각을 막을 수 있다(Z값 차이=-1.44),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Z값 차이=-1.44),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Z값 차이=-1.19), '친구관계가 좋다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Z값 차이=-1.10), 순이었다(Table 5).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5번 대상자의 면담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자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26번 대상자의 면담내용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살하는 것은 최악의 해결책이다. 해결책은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살려

고 노력을 하고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진짜 힘들면 모르겠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은 가족, 친구도 생각 안하는 미친 짓이다, '심한 구타나 체벌은 몸과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은 '자살하면 주위사람들에게 심적·경제적 타격을 주고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살아 있다면 충분히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자살을 이해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살하는 큰 이유는 죽은 후의 세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다, '종교라도 있다면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게 되므로 종교가 큰 힘이 된다, '말로 잘 타이르면 되는데 구타나 체벌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살은 최악의 선택이며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부당한 차별대우, 심한 구타나 체벌로 인해 자살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양가감정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간 일치 항목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주관성을 표현한 진술문 중 제1, 2,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반대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Z값 평균=1.14)', '힘든 일이 있을 때 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Z값 평균=1.04)' 등이었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반대한 진술문은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Z값 평균=-1.82)', '이성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Z값 평균=-1.52)',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Z값 평균=-1.22)' 등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 느낌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자살

반대-도덕적 사고형', '자살이해-공감형', '양가감정형'이었다. 제1유형은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큰 불효이며 죄악으로 자살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가족의 화목과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부모가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돌보아 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화목과 친구관계가 자살 위험성과 예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wang (2003)은 부모가 칭찬이나 이해로 청소년을 대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증가되며 삶의 의미와 욕구를 갖게 되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Pfeffer의 연구(Wiener & Dulcan, 2003에서 인용됨)에서 자살 청소년의 가정은 부모와 극단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가정 분위기가 폐쇄적이어서 부모-자녀 간에 정서적 분리가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의 화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Lee, Kweon과 Kim (2007)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관계형성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되고, 중대한 진로결정과 가치판단이 부모의 의견과 반대될 때 청소년들은 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친구의 지지는 자살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Jung, Im과 Go (2001)는 청소년은 자살생각을 친구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예방중재에 친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18명 중 8명(44.4%)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 힘들다. Kim 등(2003)에서 청소년의 41.5%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살예방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제1유형은 사랑과 애정이 뒷받침된 가족의 지지와 친밀한 친구관계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기법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집단 활동이나 캠프를 통해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살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살생각이 있는 친구를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유형은 '자살이해-공감형'으로 외롭고 우울할 때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

다는 생명경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살의 개인적 선택권을 강조하였다. Stein 등(1992)에서도 청소년의 약 50%가 자살을 수치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tein 등에서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5명(71.4%)이 자살충동을 경험하여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Stein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보이는 자살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자칫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고 빠르게 힘든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Shin, Park, Oh, & Kim, 1990) 이러한 태도는 성인에 비해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살충동이 들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우울한 기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Lewinsohn, Ohde, Seeley와 Baldwin (200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자살사고와 우울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Yoo, Son, & Nam, 2008). 따라서 자살충동을 경험한 대상자가 많은 제2유형의 경우 우울정도를 평가하여 우울경향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의 우울증은 사춘기의 정서적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당연히 겪게 되는 일시적인 우울정도로 간과되기 쉬우므로(Lee & Myung, 2008),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자살에 대해 허용적이며 자살에 대한 개인적 선택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아 자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가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생명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정, 대중매체, 종교단체에서 생명존중의식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적 중재의 하나로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과 집단을 구성하여 자살에 대한 개인적 선택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제3유형은 '양가감정형'으로 구타나 체벌, 열등감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자살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Oh (2006)에서 청소년들은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Hagh (2001)에서 중학생 대상자들은 자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살하면 문제에서 벗어나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의 인식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쉽게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살생각이나 충동이 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Hagh에서 대상자의 56.4%가 자살생각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거나 의논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필요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는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살생각을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이때 종교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Stein 등(1992)에서 종교가 자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되었으며, Oh (2006)에서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살에 대해 덜 허용적이고 자살의 개인적 선택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경우 자살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는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며, 자살생각이나 충동이 들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과 교사는 이들의 양가적 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살충동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1, 2,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반대한 진술문을 살펴본 결과, 자살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동의한 반면에 이성문제나 반항심, 타인의 관심 등은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1과 3유형은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진술문에 높게 동의한 반면에(Z값 = 1.42, 1.33) 제2유형은 낮게 동의하였다(Z값 = 0.67). 이러한 결과는 제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자살의 개인적 선택권을 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이다'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 것이 낫다'는 진술문에 대해 제1과 3유형은 동의한 반면에 제2유형은 반대하는 반응을 보여 제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생명경시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 중 제2유형 '자살이해-공감형'이 자살에 대해 가장 허용적이며 생명경시 태도가 강하여 자살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1과 3유형도 자살사고와 자살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자살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진술문과 유형별 특성은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맞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자살이해-공감형'은 모두가 고등학생이었으며 85.7%가 여학생인 반면에 '양가감정형'은 80%가 중학생이었다. 이에 자살에 대한 태도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연구(Oh, 2006)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살에 대해 더 허용적이며 자살이 개인의 권리라는 데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자살이해-공감형'에 속한 대상자 모두가 고등학생이었던 점과 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Oh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데 찬성하여 본 연구의 '양가감정형'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지만, 연령에 따라 양가감정적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향후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Stein et al., 1992; Arnautovska & Grad, 201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자살이해-공감형'에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Stein 등과 Arnautovska와 Grad에서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자살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Lewinsohn 등(20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시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우리나라 여학생 자살률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Statistics Korea, 2008)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향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자살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연구결과에 제시된 진술문들은 자살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태도를 제시한 자료로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에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탐색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주관성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이나 태도를 Q-방법론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은 3개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으로 자살에 대해 반대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생명을 끊는 것은 큰 불효이며 죄악으로 여기는 도덕적 태도를 가진 유형이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주는 가족의 지지와 친밀한 친구관계가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제2유형은 '자살이해-공감형'으로 자살하는 청소년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렵거나 힘들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3유형은 '양가감정형'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거나 차별대우와 구타나 체벌로 인해 자살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자살을 극복할 수 있으며 종교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1유형의 '자살반대-도덕적 사고형'에게는 가족 및 친구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지지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2유형의 '자살이해-공감형'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3유형의 '양가감정형'에게는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확고하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유형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확고한 태도 정립과 더불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유형을 규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Anderson, A. L., Lester, D., & Rogers, J. R. (2008).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of the suicide opinion questionnaire. *Death Studies*, 32, 924-936. doi:10.1080/07481180802440258

Arnautovska, U., & Grad, O. T. (2010). Attitudes toward suicide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Crisis*, 31, 22-29. doi:10.1027/0227-5910/a000009

Ban, Y. J., Park, Y. M., & Suk, J. H. (1989). A preliminary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suicides in normal person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8, 155-167.

Domino, G., Moore, D., Westlake, L., & Gibson, L. (1982). Attitudes towards suicide: A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257-262.

Hagh, Y. H. (2001).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wang, Y. S. (200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home & school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Jung, C. S., Im, S. B., & Go, H. J. (2001). A study on the adolescents suicidal ris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521-532.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651-661. doi:10.4040/jkan.2009.39.5.651

Kim, J. H., Kim, B. J., & Jang, D. W. (1999). A study about suicidal attitude and self-image in adolescent school girls: Focused on industrial and cultural women's high school factio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0, 220-235.

Kim, S. H., Choi, J. Y., Yang, C. H., Kang, M. C., Kim, J. H., Lee, Y. H., et al. (2003). *Life and consciousness structure of youth in Korea*. Gwangju: Korean Social Research Center.

Kim, S. W., Kim, S. Y., Kim, J. M., Suh, T. W., Shin, I. S., Kim, S. J., et al. (2008). A survey on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4, 43-48.

Kodaka, M., Poštuvan, V., Inagaki, M., & Yamada, M. (2010). *A systematic review of scales that measure attitudes toward suicide*. Retrieved April 8, 2010, from <http://www.sagepub.co.uk/journalsPermissions.nav>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32-40.

Lee, J. S., & Myung, S. Y. (2008). A study on adolescents' anti-depressive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depression lev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 39-63.

Lewinsohn, P. M., 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427-434.

Myers, D. G. (2009). *Social psychology* (10th ed.). New York, NY: McGraw-Hill.

Oh, S. G. (2006). *Relations among adolescents' suicidal attitudes, suicidal risks, and needs of self-esteem education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465-473.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Z. S.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 1-19.

Shon, J. N. (2009). A structural model of impulsiv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418-430.

Statistics Korea. (2008). *2008 Adolescent statistics*. Daejeon: Author.

Stein, A., Witztum, E., Brom, D., Denour, A. K., & Elizur, A. (1992). The associated betwee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eir psychosocial background and suicidal tendencies. *Adolescence*, 27, 949-959.

Wiener, J. M., & Dulcan, M. K. (2003). *The text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Yoo, J. S., Son, J. W., & Nam, M. S. (2008). Factor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 419-430.